

Artist's Statement

박종필

경계에 서다 (Between)

between은 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이다. 화엄경에 나오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도 같은 의미로 확장하여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이다. 대상은 고정되어 존재하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겨울이 춤거나 혹은 따뜻한 것처럼 말이다. between 시리즈와 cake 시리즈 그 외의 작품들 모두 between(사이-경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아가 이 경계선에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작자는 희망하고 있다. 이는 작품에서의 소재, 구도, 색감 등을 화려하게 배치하고 재현하는 것으로 표현하려 노력했다.

꽃이란 인간을 상징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인간을 꽃으로 비유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예는 없다고 생각하며 작업하고 있다.

만약 꽃을 인간에 비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내 작업에서의 꽃은 인간 군상의 집합이다. 군상은 생화와 조화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실재와 가상(이미지로서가 아닌 실체적 가상, 가짜를 의미한다)의 공존 공간을 의미한다.

생화는 실재하는 아름다움, 진실,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조화는 생화를 모방한 가상, 가짜, 거짓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 작업에서 이 들은 시각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갖지 않는다. 실제로 시중의 조화는 생화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오히려 생화보다도 더 생화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한다. 이는 조화가 생화의 아이덴티티를 넘어서 순간으로 실재와 가상의 차이를 모호하게 한다.

between the fresh는 이러한 경계가 없어지는 순간을 시각화 한 작품이다. 내가 보고 있는 작품 속 꽃은 생화일 수도 혹은 조화일 수도 있다. 작품 속 꽃은 이미지일 뿐이며 생화여서 아름답고 조화여서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다. 이 들의 교묘한 어우러짐으로 하나의 공간이 창조되고 아름다움이 된다.

양면성-꽃으로서의 나 혹은 당신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생화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조화인가? 그것은 알 수 없으며 정의할 수도 없다. 그리고 정의할 필요도 없다. 모든 존재는 양면성을 가지며 하나의 의미로 규정지을 수 없다.

아이러니- 작품에서 꽃이 진실이라 해도 실제의 꽃은 살아 있는 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어 버린다. 살아 있으면서 죽어있는 것이다. 반면 조화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죽어 있었지만, 시각적으로는 살아있다. 아이러니 한 일이다. 살아있는 것은 죽어가고 죽어있는 것은 살아있다.

흔하지만 소중한 것 - 현재 지구의 인구를 70억으로 볼 때 개개의 인간은 너무나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쌀알로 비유하면 70억 개의 쌀을 바닥에 뿌려 놓으면 하나의 쌀알은 그 존재조차 무의미 해 질 것이다. 꽃은 어떤가? 70억 송이의 꽃이 편 정원을 상상해 보자. 그렇다면 그 속에 편 하나의 꽃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더더군다나 그 정원 안에 조화를 하나씩 꽂아 놓는다고 하면 그것을 신경 쓰며 가려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원은 꽃 한 송이 한 송이가 모인 집합체이다.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이 어우러져야 정원이 된다. 내 작품은 이 한 송이 한 송이의 꽃을 면밀하게 재현하며 흔하지만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낸다. 작품 안에서 꽃은 생화이든 조화이든 함께 공존하며 상생한다.

왜 꽃으로 소재를 바꾸었는가? cake와 humancandy 작품들도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시리즈 역

시 between에 관해 말하고 있다. 붉은 시럽은 미각을 자극하지만 반면 피를 연상하게 된다. cake 속에 토피 또한 언뜻 보기에는 싱싱한 과일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인간의 얼굴이다. 이는 강렬하지만 괴기스러움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종용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줄 수는 없을까 고민한 끝에 꽃이라는 소재를 발견하게 되었다. 꽃은 인간과 인간의 삶을 비유하는데 흔히 쓰이는 소재이며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 꽃을 소재로 내가 생각하는 여러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이상향-승화-나 역시 삶이 힘들고 고단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현실을 살아가며 느끼는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 고통을 품고 아파하며 발산하는 것으로는 삶이 온전해 질 수 없다. 모든 것이 완전한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상향을 꿈꾼다. 예술은 그 이상향의 한 형태이다. 작품을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견딘 후 완성하게 될 작품에는 작가의 이상향이 존재한다. 삶은 고통을 토로하고 눈물 짓는 것이 아닌 그 고통 너머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작품을 통해 우리의 삶이 승화되기를 바라고 있다.